



# 국민 대표 먹거리, 돼지고기 공급 가격 인하... 정부-업계 소통협력으로 민생 물가안정에 앞장

- 중동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비자 부담 완화 위해 노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가공업계와 소통·협력한 결과 돼지고기 뒷다리살, 삼겹살, 목살 등의 공급 가격이 4월중 인하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 중 하나인 돼지고기의 이번 공급 가격 인하는 봄철 나들이 등 수요 증가 시기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육가공업계가 자발적으로 공급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 뒷다리살 공급 가격 인하 동향 : 3개 업체, 750톤 평균 4~5% 인하

\* 삼겹살·목살 공급 가격 인하 동향 : 5개 업체, 288톤 평균 5.9~28.6% 인하

최근 정부는 돼지고기 뒷다리살의 적정 재고량과 관련하여 학계·전문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육가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중동 상황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육가공업계가 돼지고기 공급 가격을 내린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축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실	책임자	팀 장	전익성 (044-201-2371)
	축산유통팀	담당자	서기관	홍성현 (044-201-2318)